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대다수 시민 뜻 반영”

이용섭 광주시장 “시민권익위 논의 주도해 공정성 확보” 현대차 투자협약 등 주요 현안 조기 마무리 방침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 방식으로 올 하반기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광주시민 삶의 질 제고 ▲훗날 역사적 평가 등을 향후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일 휴가를 끝내고 시정에 복귀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와 관련 “지난달

11일 발족한 시민권익위원회(공동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 구성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실이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 문제를 교통건설국이 아닌 신설된 시민소통기획관실과 시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주도해 결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우리 지역사회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외에도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오랜기간 이 문제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찬반이 불기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론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러 (건설)방식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 방식이 조기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와 진행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완성차 자동차 공장 설립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그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광주 일자리 창출

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노조가 참여하지 않아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온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투자협약이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노조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일자리,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수 시민들의 뜻을 확인한 뒤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 삶의 질 제고, 역사적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문화전당 정상화 요청

정부에 전당장 조기 임명 등

이병훈(사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에 참석,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소통 부재 등에 원인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도시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와의 소통 강화와 아시아문화전당장 조기 임명, 아시아문화전당장과 추진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 아시아문화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일원화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 옛 전남도청 복원,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5대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또 전당 활성화 및 옛 전남도청 복원 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도시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과도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에 당장 응하라!!

“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하라”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으로부터 가로수·조경수 피해 막아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공립나무병원’ 무료 운영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남지역 가로수·여유 폐사 및 농작물 피해에 이어 수목 피해도 우려된다.

2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조경수 등 수목에도 폭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을과 올해 식재한 가로수와 조경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수목들은 아직 뿌리생육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 및 건조 스트레스를 받아 심할 경우 고사피해가 우려된다.

전남지역에서 주로 생육하고 있는 나무들의 적정온도 범위는 0~35도 정도로 최

근처럼 연일 기온이 35도 이상을 유지하면 고온피해를 받게 된다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전했다.

또한, 폭염 속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목 병해충은 흰가루병과 그을음병, 갈색날개매미충, 응애류, 방패벌레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발견 즉시 전문가와 상담후 방제해야 한다.

전남산림자원 연구소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수목에 발생하는 주요 피해 증상은 엽소(葉燒·잎이 타들어가는 증상)와 피소(皮燒·수피가 타들어가는 증상)가 있으며, 이밖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돌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수시로 물을 공급해 주거나 필요시 그늘막을 설치한 뒤 과도한 증산작용을 억제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수목관리 및 병해충 상담을 위한 ‘공립나무병원’을 무료로 운영해 도내 생활권 주변 수목의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전국 최고

복지부 평가 대상 선정 기초단체 해군군 최우수상

전남도가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계획을 전국에서 가장 잘 수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를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2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군군이 최우수상, 순천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진행된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짜여졌는가 여부와

이행, 지역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17년 전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취약한 복지여건과 전국 최저 수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도민 욕구조사, 시군별 여건분석, 타 시도 비교분석 등을 통해 ▲생애 주기별 복지 충족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자립 지향적 고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총 10개 부문, 104개 사업을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우수 지역사업인 교통 복지사업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복지시설-운송업체-전문시장-병원이용 등이 편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 1석 2조 복지사업으로 꼽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4·5급 106명 승진·전보 인사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부군수

전남도가 신설 준국장인 인구청년정책관에 유현호 보성부군수를 보임하는 등 4·5급 10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22면>

이번 인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인구회복과 인재양성, 전남의 블루오션인 섬과 자연자원 산업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있도록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준국장인 기업도시담당관에는 김양수 모터스포츠담당관이 보임됐고, 사회복지

직역 최초로 손선미 보육아동팀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장애인복지과장을 맡게 됐다. 신설된 희망인재육성과장에는 김선영 교통기획팀장이, 투자유치과장에는 신상식 기업유치팀장이 배치됐다.

특히, 이번 4급 인사에서 여성과장이 5명(고령화정책과장 윤연화,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강정화) 포함되면서 여성 간부 비율이 11.9%에서 12.5%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인 10%보다 2.5%포인트 높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